

# 무안국제공항, 동남아·中·제주 등 정기노선 8개 확대

진에어·제주항공 본격 운항 예정  
항공사 추가 지원책 영향 미쳐  
올해 여객 목표치 50만명 넘을 듯



진에어



제주항공

국토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이 동남아, 중국, 제주 등을 오가는 정기노선을 연내 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표격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국제 정기노선을 4~5월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은 ▲무안~제주(진에어, 편도 기준 주 2회) ▲무안~장가계(제주항공, 주 4회) ▲무안~연길(제주항공, 주 2회) 노선으로, 3개 항로에 주 8회다.

전남도는 여기에 올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무안~마닐라(로얄에어 필리핀) ▲무안~라오스(라오항공·국적기) ▲무안~몽골 울란바토르(진에어) ▲무안~몽골(훈누에어) ▲무안~다낭(제주항공) 등 5개 노선을 추가해 총 8개 정기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운항횟수는 주 2~4회 정도로 조울중이다.

도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선과 국내선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번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

항공사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 지원을 운항 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하

고, 이용객 편의 증진과 공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정기선까지 더해지면 올해 무안공항 국제선 항공여객은 당초 목표치인 5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무안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탑승객은 10만 명을 기록했다.

유호규 전남도건설교통국장은 “무안공항에 정기노선 운항을 결정해 준 항공사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국제 정기노선 확장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의성군

####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 진행

의성군은 4일부터 24일까지 ‘산수유마을 꽃밭이 행사’ 농특산물 특별 기획전을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과 우체국 쇼핑몰 의성장날 브랜드관에서 진행한다.

‘의성장날’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산수유, 흑마늘 등 관련 제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무료배송과 함께 산수유 꽃밭이 행사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한 의성장날 회원가입 시 신규가입쿠폰(1만원) 지급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경북)=장영우 기자

### 예천군

####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추진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올해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 3578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인 기준 연간 13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소멸된다.

/예천(경북)=장영우 기자

## 경북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한다

이달부터 교원안심공제 사업 시행  
교육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도 마련

경북교육청이 3월 부터 교원안심공제 계약에 따라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교원으로 교육청이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검정조사 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안심공제 사업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나주시, 귀농·귀촌 삶의 질 향상 도모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본격화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가 자체 공모를 통해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착수해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농촌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윤병태 나주시장의 민선 8기 핵심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원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마을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빈집정비, 경관 개선 등 마을 환경정비를 비롯해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 한다. 정비된 빈집은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귀농·귀촌



전남 나주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나주시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첫 사업 추진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9월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자율공모를 통해 마을 6곳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오는 202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24년 6곳, 2025년 6곳, 2026년 6곳, 2027년 6곳 등 총 24개 마을을 선정해 각각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창원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

## 창원시,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수여

(취한화, 하이트진로㈜) 등 선정

경남 창원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 중 (취한화, 하이트진로㈜) 2개 기업과 기성하이스트 김부용 대표,

서울병원 윤지열 원장, the큰병원 김경범 원장 등 개인 3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전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홍남표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부산시, 커피업계 성장동력 확보 박차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은 국내외 포럼 개최,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기술 개발, 사업화·마케팅 지원, 커피산업 실무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커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커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기술개발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총 16개사를 모집한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연구 개발(R

&D), 사업 확장,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3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 원천 기술 확보, 공정 개선, 제품 고급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3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사업화·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분석, 제품 홍보, 판로 개척,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10개 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커피기업의 브랜드 가치 증진과 기술력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커피업계의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여주시

#### 드론 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

여주시 점 드론배송 하늘길 ‘활짝’ 열릴 전망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작년에 이어 본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까지 총 6억 5천만 원을 투입, (주)스카이포츠드론서비스코리아, (주)무지개연구소,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점 맞춤형 드론배송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여주(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전남도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전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데이터기반 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과 활용 ▲역량문화 조성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 /전남=양수영 기자